

# “공부 늦어지는 까닭은 미루는 마음 때문”

##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

무위한도인(無爲閑道人)이여 재처무중적(在處無 跡)이로다 경행성색리(經行聲色裏)나 성색외위의(聲色外威儀)로다.

함이 없는 한가한 도인이여. 어디있으나 그 자취가 없도다. 행이나 소리나 빛깔속에 있어도, 소리나 빛깔을 벗어난 행위로다.

황벽(黃檗)스님은 범명은 희운(希運)이고 백장 회해(百丈懷海)선사의 법을 이었습시다.

황벽스님이 어느날 대중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대들은 모두 다 술찌게미를 먹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행각해서야 어느곳에 깨달을 날이 있겠는가? 대당국(大唐國)안에는 선사가 없다는 것을 알겠느냐?”

그때 어떤 스님이 앞으로 나와서 말하였다.

“그렇다면 여러 곳의 선원에서 수행자들을 지도하고 있는 분들은 누구니까?”

황벽스님께서, “선(禪)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다만 스승이 없을 뿐이다.”라고 했다.

여기에 대해서 만송노인(萬松老人)은 말했다. 어느날 황벽스님께서 “그대들 모두는 무엇을 구하는가?” 하고 몽둥이로 내쫓았다.

대중이 흠어들지 않으니, 선사께서 다시 이르되

“그대들은 모두 술찌게미나 먹는 사람들이다.” 하였으니 당나라때에는 사람을 꾸짖을 때 술찌게미를 먹는 놈(嗜酒糟漢)이라고 했다.

제(齊)의 환공(桓公)이 당(堂)위에서 글을 읽는데 윤편(輪扁)이 당(堂) 아래서 수레바퀴를 깎다가 망치와 끌을 놓고 당(堂)위에 올라와 물었다.

“감히 묻노니 공(公)께서 읽으시는 것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공이 답하되,

“성현들의 전적이라 하였다.”

윤편이 다시 묻되

“성인이 어디 계십니까?”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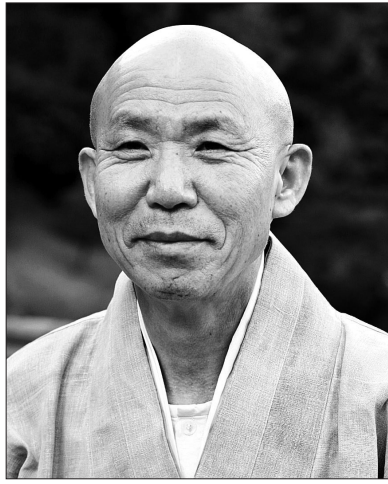
공이 답하되

“이미 떠나셨느니라.” 하였다.

“그렇다면 공께서 읽으시는 것은 옛사람의 찌

게미입니다.”

공이 이르되



“과인이 글을 읽는데 수레바퀴나 깎는 주제가 무엇을 안다는 것인가? 해명할 말이 있으면 옳거니와 해명할 수 없으면 죽음을 각오하라.” 하니 윤편이 이르되 “신이 신의 일로써 관찰하건대, 수레를 깎는데 느슨하면 험거워서 견고하지 못하고 꼭조이면 뻑뻑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느슨히 하지도 않고 꼭조이지 않으려면 손에서 얻어지고 마음에서 느껴져야 합니다. 말할 수 없으나 묘함은(이치는) 그 사이 존재합니다. 신도 신의 자식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자식 역시 신에게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신의 나이 칠십이 되도록 수레를 깎고 있습니다. 옛사람도 전하지 못하고 죽었을 터인즉, 공께서 읽으시는 것은 옛사람의 찌꺼기입니다.” 하였다.

사자(獅子)는 교인(咬人)하고 한로(漢盧)는 축고(逐塊)나라. 사자는 흙덩이를 던지면 사람을 무는데, 한나라 개는 흙덩이를 쫓는구나.

《종략》 황벽스님께서 한때 홍주(洪州)땅의 개원사(開元寺)에 머물고 계셨다.

상공 배후거사가 어느날 절로 들어오다가 벽화를 보고 그 절 주지스님에게 물었다.

“이것은 무슨 그림입니까?”

“고승들을 그린 그림입니다.”

“고승들의 겉모습은 여기에 있지만 고승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 절 주지스님이 아무런 대답을 못하자 배후거

가 “이곳에 선승은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

“한분이 계십니다.”라고 대답했다.

상공은 마침내 대사를 청하여 뵈고, 주지스님

에게 물었던 일을 대사에게 되물었다.

그러자 대사가 불렀다.

“배후!”

“예!” “어디에 있는고?” 상공은 이 말 끝에 깨치고 대사를 다시 청하여 개당설법하시게 하였다.

명월청풍공일가(明月淸風共一家)로다. 명월과 청풍은 같은 한 집 이로우나.

동안거 해제 한지가 옛것과 같은데 벌써 병신년 하안거 결제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우리 공부가 늦어지는 까닭은 시간 여유가 있거니 하고 항상 미루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고나면 오늘은 죽지않고 살았으니, 살아있는 오늘에 공부를 마쳐야지 내일 어찌 믿으랴 생각하고 애써 정진해야 합니다.

일월사전광(日月似電光)이니, 광음량가석(光陰良可惜)이로다. 차신불항금생도(此身不向今生度)하면 갱대하생도차신(更待何生度此身)이로.

세월이 번개처럼 빠르니, 시간을 아껴 가지 않습니다.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못하면, 어느 생을 기다려 제도하리요.

## “물처럼 무념무상으로 화두참구”

###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우주만물의 궁극적 본질인 진리의 여실한 그대로의 참모습(眞如實常)을 사유하는 불교는 과학을 뛰어넘고 철학적 사유의 틀 안에 갇혀 있지 않으며, 언어와 문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깨달음을 증득하도록 출세간(出世間)의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법은 세간(世間)의 이치보다 수승하며, 깊고 오묘한 의리(義理)로서 유식(唯識)에서는 승의(勝義)라 하고, 우주 본질을 함유하고 있는 승의(諸法勝義)를 곧 진여(眞如)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眞)은 시간적으로 변하지 않으므로 진실(眞實)되어 허망(虛妄)이 아니고, 여(如)는 공간적으로 변하지 않으므로 여상(如常)하기에 항상 모든 법의 본성인 진실한 마음이며, 깨달음의 본체(眞實如常)이자 수행자가 추구해나가는 궁극입니다. 수심결에도 진실한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끊어지지도 변하지도 않으며(眞心如空 不斷不變), 그 한 물건은 영원히 신령(一物長

靈)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본질적 진실의 참 뜻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날 각종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지능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현실의 감각과 인지증가(認知增加)의 강화현상인 가상현실의 한 형식으로 인간사회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강 현실까지도 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현상은 수행도중에 신체각각의 사실과 더불어 존재하는 공간지각도 함께 사라진 상태를 맛보게 되는 현상과 유사한데, 이 때 모든 경계가 사라져 우주 대자연이 나와 한 몸이 된 초월적 의식상태에 근접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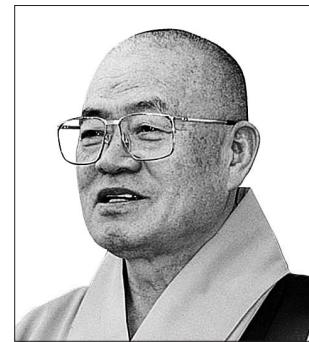
러나 이것은 수행자에게 알음알이와 망상에 억매이지 말고, 세계와 자아가 분리되지 않은 가상이 현실인간의 존재와 사물의 본질, 그리고 그에 대한 인식과 인지의 문제 등 철학적으로는 지금여기, 실재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 문제를 환기시켜주는 새로운 화두출현(話頭出現)의 계기라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계산승(曹溪山僧)의 바람은 결제에 들어가는 수행자들이 알 수 없는 의문을 타파하기 위하여, 부디 분별·망상심을 다 놓아버리고, 말없이 흐르는 물처럼 무념무상의 마음으로 화두참구에 전심전력(全心全力)을 다해 참나하기를 성취하길 기원하는 바입니다.

萬法皆空明佛性(만법개공명불성) 一塵不染證禪心(일진불염증선심) 身在上方諸法靜(신재상방제법정) 心持半偈萬緣空(심지반개만연공) 만법이 모두 공하니 부처님의 성품을 밝히고, 한 티끌도 물들지 않으니 선의 마음을 증득하네. 몸을 높은 경지에 두니 모든 사물 고요해지고, 마음으로 게송지니니 만 가지 인연이 쉬네.

## “본참공안 간절히 참구하라”

### 쌍계총림 쌍계사 방장 고산 스님



出格丈夫意衝天(출격장부의충천)하니 打破鐵輪成太平(타파철륜성태평)이로다.

萬類含藏自在遊(만유함식자재유)요 娑婆變爲極樂國(사파변극락국)이로다.

격식에 뛰어난 대장부가 뜻이 하늘에 사무치니 철륜을 타파하고 태평한 세상을 이루었도다.

만류의 함식중생이 자유자재함을 얻었고 사바세계가 변하여 극락세계가 되었도다.

修行者(수행자)가 一念頓悟(일념둔오)하면 捉敗佛祖(착패불조)하고 自在遊戲(자재유희)어니 何用多時(하용다시마)야?

其或未然(기혹미연)인댄 於本 公案上(여본참공안상)에 坊坊 畔畔(근근참상)하야 前後際斷(전후제단)하고 疑團獨露(의단독로)하야 二四時中(이사시중)에 省省不昧(성성불매)하면 漸入佳

境(점입가경)이니 到此時節(도치시절)하야 生死二字(생사이자)를 付着額上(부착액상)하고 一刀兩斷(일도양단)하야 心如吹毛利劍(심여취모이검)하야 廢寢忘餐(폐침망찬)하고 於公案上(여공안상)에 密密做去(밀밀주거)하되 如是七日乃至二七日(여시칠일내지이칠일), 三七日(삼칠일)하면 忽然踏著本地風光(홀연답착본지풍광)하야 卽了生死一大事(즉요생사일대사)하리니 坊坊 畔畔(근근참상)이이다.

수행자가 한 생각 물록 깨달으면 부처님과 조사와 손길잡고 자재로이 유희하거니 어찌 많은 시간을 허비하겠는가?

그 후 그러하지 못할진저 본참공안에 간절히 간절히 참구해서 전후제가 끊어지고 의심이 독로해서 24시간 가운데 성성하여 매하지 아니하면 점점 아름다운 경계에 들어가리니 이러한 시절에 이르러서 생사 두 글자를 이마위에 붙이고 한 칼로 두 끝을 내어서 마음을 취모리 검과 같이 해서 잠자고 밤먹는 것도 잊고 저 화두공안에 세밀하게 공부를 지어 가되 1칠일내지 2칠일, 3칠일을 이와 같이 하면 홀연히 본지풍광을 답착해서 곧 생사일대사를 요달하리니 간절히 참구 할지이다.

一拳打倒須彌山(일권타도수미산)하니 縱橫行步無 碍(종횡행보무애)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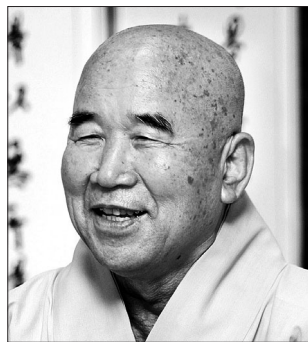
奉鉢清香滿盛飯(봉발청향만성반)을 供養十方佛菩薩(공양십방불보살)이로다.

한주먹으로 수미산을 쳐부수니 종횡으로 걸음함에 걸림이 없도다.

한바투에 가득한 청향반을 시방의 불보살님께 공양하도다.

## “법계안거 되도록 철저히 반조”

###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一切無非佛事(일체무비불사)어늘 何須攝念坐禪(하수섭념좌선)이리오 妄想本來空寂(망상본래공적)하니 不用斷除攀緣(불용단제반연)이이다. 일체모든 것이 불사 아닌 게 없거늘 어찌 생각을 거두어 좌선만 하려하는가? 망상이 본래 공하여 적적한 것이니 인연들을 애써 끊으려하지 말지이다.

수행에 있어서 제일 우선은 직관의 지혜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모래를 써서 밥을 지으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월의 빠름이 폭포수 같다고 했는데 헛된 시간을 보내셔야 되겠습니까? 청안의 눈을 가진 이들이 일대사를 결판 짓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반드시 결판내고 말겠다는 용맹심과 결단을 지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어가는 이 공부는 나를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불사입니다. 지혜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모든 일이 불법 아닌 게 없고 짓는 일마다 불사 아닌 게 없습니다. 온갖 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공경 예배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말합니다. 참 불사

는 형식의 틀에 구애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것이 중생에게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공부의 진정한 묘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불사가 되기 위해서는 현상을 꿰뚫어 보고 이치에 밝아야 합니다.

수월도량에 앉아서 공화만행을 닦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속에 비친 달 빛 같은 도량과 허공 꽃 같이 집착 없는 만행을 한다는 말입니다.

수행하기 좋은 특별한 장소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고요한 산속에서 부동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경계를 대함에 있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끓으려 하는 번뇌 망상도 그 근본이 본래 공하다는 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번뇌가 보리요 무명 그대로가 실다운 성품이라고 역대조사가 누구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말에만 떨어지고 반조가 없으면 동쪽으로 가려하지만 서쪽을 향해 있는 것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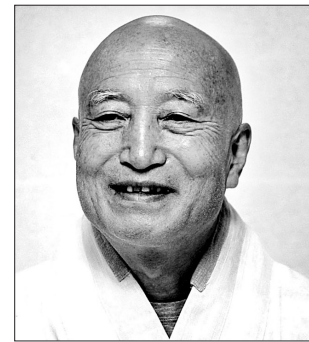
철저한 반조가 이 집안 공부의 시작인 만큼 이번 안거는 법계안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망상의 유혹에도 자기본심이 부동하고 매 순간마다 정념에 안주하는 안거를 말합니다. 높고 높은 산 정상에 우뚝 서 있는 것처럼 당당하고 깊고 깊은 바다 밑을 걷어가는 것처럼 세밀하게 사무치는 공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手把 秧 蓊田(수과평양삼판전)이여 低頭便見水中天(저두변견수중천)이라다 心中 聯方為道(심중정정방위도)니 退步原來是向前(퇴보원래시향전)이로다.

벼 모종을 손에 움켜쥐고 모내기를 하노라니 고개를 숙일 적마다 물속에 하늘이 보이네. 마음이 청정한 것을 도라하니 뒷걸음질 치지만 앞으로 나가는 이치 같다 할까?

## “一心이 곧 萬像이다”

### 덕속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滿空禪師(만공선사)께서 世界一花(세계일화)를 주창하셨다.

한떨기 신령스런 이 꽃은 萬古(만고)에 찬란한 心性(심성)의 꽃이다.

이 꽃은 계절에 關係(관계)없이 피고 時間(시간)과 空間(공간)에 관계없이 핀다.

그 모양은 古古(고고)에 화려하고 그 향기는 안으로 온갖 미묘함을 머금고 밖으로 森羅萬像(삼라만상)에 훈훈하다.

이 꽃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의 主人(주인)이 되고 모든 法(법)의 王(왕)이다.

이것은 넓고 넓어서 그와 견줄 것이 없고 높고 높아서 그에 짝할 것이 없다. 참으로 미묘하고 신비하여 天地(천지)보다 먼저 생겼으니, 그 시작을 알 수 없고 天地(천지)보다 오래 있되 그 끝남을 알 수 없으니 空(공)이라 할 수도 없고 有(유)라 할 수도 없는 이것은 마음

의 꽃이다.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들이 만고의 보배를 다 지니고 있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六道(육도)에 윤회하면서 가지가지 苦痛(고통)받는 것을 탄식하시고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저 苦海中(고해 중)에 無差大悲(무차대비) 龍船(용선)을 타시고 無爲正法(무위정법)을 說(설)하시니 묘한 소리가 天地(천지)를 진동하고 眞理(진리)의 물결이 하늘에 가득하여 苦海(고해)에 빠진 중생들을 涅槃妙樂(열반묘락)으로 向(향)하게 하셨다.

滿空(만공)선사께서도 이 산중에서 眞理(진리)의 꽃을 활짝 피워 學人(학

인)들을 提掣(제적)하시니 때로는 金剛(금강)과 같은 囑(갈)로 人我(인아)의 조잡한 수를 베어버리고, 때로는 지혜의 棒(봉)으로 침철한 어둠을 비취 미혹의 안개를 걷어내시어 그들로 하여금 斷見(단견)과 常見(상견)의 구렁에서 나오게 하여 진리의 계단에 오르게 하고 萬行(만행)의 꽃을 피워서 法性(법성)에 契合(계합)하게 하였다.

一心(일심)이 곧 萬像(만상)이요 만상이 곧 一心(일심)인 것을,

이것은 圓滿(원만)하기가 허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으며 떨지도 가깝지도 않으며 가고 옴도 없어서 옛과 지금이 없으니 千江(천강)에 비친 달이요 구름 한 점 없는 萬里(만리)의 푸른 하늘이여라.

밝고 밝은 빛이 대천세계에 비치니 여섯 窓門(창문)은 환하고 평은하여라

모든 것이 높고 굽이 없음을 분명하게 알았거니

네 벽에 맑은 바람은 겁 밖에 오묘하구나